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비판적 읽기

옥현진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1. 서론

사람들에겐 저마다 디지털 기술의 진보를 체험한 순간이 있을 듯하다. 필자에게는 ‘르모(Lemot)’라는 워드 프로세서를 처음 접했을 때가 그랬다. 비록 좁은 액정 화면에 네다섯 행밖에 표시되지 않고 다 쓴 후에는 감열지로 출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전까지 손으로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글을 완성해야 했던 수고로움에 비하면 이 문명의 이기가 가져다준 변화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최근에는 한 검색 사이트를 통해 논문에 들어갈 500자 내외의 국문 초록을 불과 십 초도 안 걸려서 영문으로 변환했을 때, 그리고 번역서 작업 중에 난해한 고어 투의 문장을 번역 사이트의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 온전하게 번역해 냈을 때도 ‘르모’ 때와 비슷한 기술의 진보를 체험했다. 최근의 그 체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공 지능과 빅 데이터 기술이 일상의 번역 서비스에도 이미 적용되어 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에 힘입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 하나의 사이버 공간을 통해 집단 지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였다.

최근 우리에게는 공동의 체험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6년 3월에 있었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들 수 있을 듯하다. 첫 대국이 시작되기 전까

지만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인간의 우세를 점쳤고 언론에서도 비슷하게 예상했지만 실제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이다. 같은 해에 ‘제4차 산업 혁명’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고 그 기반이 인공 지능과 로봇 기술, 빅 데이터와 클라우드 등 한 단계 더 진화한 디지털 기술에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데는 알파고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으리라고 본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시대의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체험하는 방식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일 듯하다. ‘2018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99.5%에 이르며, 만 3세 이상 인구의 91.5%가 인터넷 이용자이고 89.6%가 스마트폰 이용자이다. 또, 만 3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의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10시간 47분 정도이고, 주 평균 1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36.3%나 된다.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65.2%가 누리 소통망(SNS)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이들의 주 평균 이용 빈도는 22회였다. 다른 조사[김선호 외 (2018),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8 한국’]에 따르면 아침 종이 신문과 저녁 텔레비전 방송으로 대표되던 뉴스 이용 방식도 상당 부분 디지털 뉴스(검색 및 뉴스 수집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얻는 편리함 이면에는 우려해야 할 부분도 있다. 지난 2016년 12월 4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소재한 한 피자 가게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총을 쏜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20대의 백인 청년으로, 당시 미 대선 막바지에 누리 소통망을 통해 집중적으로 유포되었던 소문(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이 피자 가게에서 운영하는 아동 성 착취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560 킬로미터나 차를 몰고 가서 총격 사건을 벌인 것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은 이른바 가짜 뉴스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였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그 영향력도 커짐에 따라 이 글에서는 디지털 미디어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비판적 읽기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후의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으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한 사회 구성원들의 비판적 읽기 능력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각 개인의 주체성 형성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징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비판적 읽기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짚어 보아야 할 것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자체를 파악하는 일이다. 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이 글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비판적 읽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징을 논하려면 우선 미디어의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디어란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수단 또는 통로를 말한다. 인류는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역사적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발전시켜 왔는데, 이는 머릿속에 담긴 메시지(의미)를 가능한 한 온전하게 주고받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인쇄 미디어를 발명하여 사용하면서 인간은 그 이전 즉 구술 시대에 메시지를 오직 기억에 의존하여 전달해야 했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여러 사람을 거치더라도 원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것이다. 하지만 구술 시대에 비해 시각 의존적 소통이 강조되면서 서

로가 마주 앉아 대화를 주고받을 때와 맥락과 다양한 감각을 통해 소통할 때의 장점은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디지털 미디어는 구술 시대 소통 방식의 주요한 특징들을 복원함과 동시에 시공간의 제약도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소통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구술 시대에 한 정치가의 대중 연설은 같은 시간에, 그 현장에 있어야만 수용 가능한 텍스트였다면, 지금은 촬영과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를 통해 언제든 접근 가능한 텍스트가 되었다.

앞의 예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미디어로, 이 개념 속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뿐만 아니라 유·무선 인터넷 회선도 포함된다. 디지털 미디어가 발전하는 양상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요약되는데, 그중 하나는 기존에 존재했던 미디어들을 수용하여 변형하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예로 기존의 인쇄 매체(책, 신문, 잡지 등)들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재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 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새롭게 나타난 미디어이다. 대표적인 예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나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 소통망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먼저 언급할 것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텍스트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텍스트의 존재 방식 역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말로 그 개념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이후의 논의를 위해 잠정적으로 ‘다양한 기호 체계(문자, 이미지, 사진, 동영상, 또는 이들의 결합)를 활용하여 특정한 의도를 담아 소통의 목적으로 생산한 매개체’ 정도로 정의해 보고자 한다. 예컨대 누리 소통망에 올린 여행 사진은 지인들에게 자신의 최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하나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사진 텍스트에 지인이 짧게 남긴 댓글 역시 또 다른 의도가 담긴 하나의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인쇄 미디어가 보편화된 이후 지난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최근까지도 읽기의 대상은 으레 도서, 잡지, 신문 등 종이 위에 문

자가 중심이 되어 조직된 텍스트로 여겨져 왔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의도를 표현하는 방식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다양해지고 있는 텍스트마다 고유한 읽기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과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는 이 각각의 독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텍스트 생산에 참여하는 사회 구성원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앞서 2018년 현재 우리나라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65.2%가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우선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텍스트 생산에 참여하는 사회 구성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직간접적이라고 표현한 까닭은 자신의 고유한 텍스트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행위 외에 누군가가 생산한 텍스트에 댓글을 달거나 그 텍스트를 자신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는 행위 역시 간접적인 텍스트 생산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텍스트 생산에 참여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1인 미디어가 확산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인데, 여기서 1인 미디어란 1인의 창작자에 의해 생산된 텍스트가 구독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의 미디어를 말한다. 또 최근 들어서는 이들 1인 창작자들의 텍스트 생산을 지원하고 배급을 담당하는 다중 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의 급성장을 증명하듯, 2018년에 수행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에서는 1인 창작자(해당 보고서에서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명명됨.)가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5위에 오르기도 하였다[정은진 외(2018)].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주된 수입원은 광고 수익이다. 일례로 유튜브 구독자들은 1인 미디어 제작자가 만든 동영상 텍스트 시청 시 전후 또는 중간에 광고에 노출되는데, 유튜브는 이 광고 수익 중 일부를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분배한다. 또 채널에 따라서는 유료 서비스, 즉 구독자가 돈을 주고 아이템을 구입한 다음 이를 창작자에게 선물하는 방식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광고 수익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2017)]. 이처럼 수익 창출을 위한 경쟁이 심화하면서 구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더 자극적인 텍스트를 생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인공 지능과 빅 데이터 기술의 발달로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과정에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개인 맞춤형 텍스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구입 의사가 있어 한번 조회해 본 상품에 대한 정보가 며칠 후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에도 광고처럼 계속 제공되는 경우라든가,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하나의 동영상을 시청했을 때 그 동영상과 관련된 다른 동영상들이 추천 목록에 제시되는 경우 등이 개인 맞춤형 텍스트의 구체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술은 각자의 요구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기술은 한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선별된 정보만 제공함으로써 그 독자가 자신과 입장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생산한 텍스트로부터 차단된 채 자신만의 이념적·문화적 거품, 이른바 ‘필터 버블(filter bubble)’[파리서, Pariser(2011)]에 갇히는 현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필터 버블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인공 지능 기술을 약용해 기준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하여 가짜 이미지, 음성, 동영상 텍스트를 만들어 내는 행위, 이른바 ‘딥 페이크(deep fake)’ 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4월에 조던 펠(Jordan Peele)이라는 영화감독이 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게시한 가짜 동영상을 들 수 있다. 이 동영상의 앞부분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실제로 독설을 퍼붓는 듯한 장면으로 구성되었으며, 뒷부분은 펠 감독이 직접 등장하여 오바마 전 대통령의 목소리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이런 가짜 동영상이 얼마

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경고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었다.

3.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비판적 읽기 전략

이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우리에게 어떠한 비판적 읽기가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두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우선 비판적 읽기는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생겨난 읽기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판적 읽기는 비판적 사고에 기반을 둔 읽기 행위로서 아주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온 읽기 방식이며, 시민 사회가 성장하고 비판 이론이 확산하며 우리 사회가 지식 기반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다른 한 가지는 비판적 읽기가 필요한 텍스트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정치적인 견해를 주제로 한 텍스트나 상업 광고 텍스트와 같이 비판적 읽기가 더 강조되는 텍스트가 있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1인 미디어의 급격한 증가로 비전문가가 악의 없이 단지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생산한 텍스트 속에도 잘못된 정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텍스트를 수용하는 과정에도 비판적 읽기가 필요하다.

비판적 읽기를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제안하려는 것은 근거의 타당성을 끊임없이 묻는 읽기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니얼 러비틴(Daniel Levitin)의 저서 『무기화된 거짓말(Weaponized lies)』을 참조할 수 있다. 러비틴은 이 저서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주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주장과 증거가 없는 주장을 분간하고 노력하는 것, 더 나아가 제시된 증거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러비틴이 이 책에서 제안한 전략은 크게 세 범주로 나뉘는데, 그중 첫 번째는 숫자, 즉 잘못 처리된 통계치와 그래프에 주목하는 것이다. 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편파적인 거짓말쟁이들이 통계치와 그래프로 사람을 속이기 쉬운 이유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료를 찬찬히 살피며 원리를 따져 보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학생들이 읽는 독서량이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해마다 줄어든다는 내용의 자료를 예로 들어 보자. 자료는 우리 교육 제도의 결함—좋은 학습 습관을 기르지 않으며, 교양을 쌓는데 흥미가 없고, 지적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이제 잠시 시간을 두고 자신에게 물어 보라. ‘독서량’은 이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에 적절한 척도일까? 초등학교 2학년생들은 대체로 아주 얇은 책을 읽는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책의 두께가 점차 두꺼워진다. (중략) 게다가 그 연구는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판매하는 한 기업에서 실시한 듯한데, 당연히 그 기업은 학생들의 독해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보고를 하면 이득을 보게 된다.

- 러비틴(2016), 16~17쪽.

러비틴이 제안한 두 번째 방법은 근거의 출처로 자주 활용되는 전문가의 목소리에 대한 비판적 이해로, 우선 전문성은 대체로 그 범위가 좁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의 이야기 방식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갖가지 사실을 검토하고 종합하여 증거에 기초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의견(소견, 가정, 검증되지 않은 생각)을 들려주는 방식이라는 점도 계속 인식하면서 읽기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러비틴의 세 번째 제안은 과학적 방법의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방법은 ‘극히 난해한 수수께끼를 파헤치는 지금까지 발명된 최선의 수단’(15쪽)으로써 신뢰할 만한 증거 생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일 뿐 과학적 방법을 통해 생산된 증거를 불변의 진리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진짜 과학은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 의혹, 논쟁으로 가득'하며 '진짜 과학 지식은 수많은 재연과 수렴적 연구 결과를 통해 서서히 확립된다'(253쪽)는 것이 러비틴의 생각이다. 따라서 더 비판적인 독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생산된 증거와 그 증거에 기반을 둔 주장이나 의견에 좀 더 긍정적인 신뢰를 보이되 그 증거가 다른 연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 것인지, 해당 사안에 대한 최초의 증거인지, 서로 대립하는 주장의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증거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비판적 읽기를 위한 두 번째 전략은 읽기를 특정한 의도를 가진 필자와의 대화로 인식하는 것이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까지의 읽기 행위, 그리고 학교에서의 읽기 교육에서는 그 점이 부각되지 못했다. 단적인 예로 중요한 시험의 읽기 문제들을 떠올려 보면 될 듯하다. 읽기 시험 문제를 푸는 상황, 그리고 그러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읽기 연습 상황에서 우리의 신경은 온통 텍스트에 대한 해석에 쏠릴 뿐 누가 그 텍스트를 썼을까 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산업화 시대에 표준화된 읽기 능력을 가진 독자들을 길러 낸다는 전제하에 강조되어 온 읽기 방식으로, 지금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읽기 방식은 아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20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생산되는 텍스트의 양이 지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1인 미디어 시대가 아니었던 만큼 하나의 원고가 최종적인 텍스트로 출판되기까지 오히려 집단 지성이 작용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사회가 아니었던 만큼, 특정한 텍스트의 생산과 유통이 부나 권력의 원천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렇다면 필자와 대화하는 비판적 읽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무엇보다도 필자를 불변의 진리를 설파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고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일 수 있으며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도 있는 살아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필자가 어떤 텍스트들을 생산해 왔는지, 그리고 기존에 생산된 텍스트와 현재 읽기 대

상으로 삼은 텍스트의 관련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정보를 다룬 텍스트라면 필자가 그러한 텍스트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교육과 연구 경험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독자가 누구이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는지, 그 소통을 통해 궁극적으로 필자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 번째 전략은 하나의 사안,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통로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다. 본 필자가 어떤 읽기 과제 상황에서 스스로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나 명확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사안을 접했을 때 취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한참 동안 댓글을 읽는 것이다. 읽는 댓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사안과 연계된 다른 문제들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중론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수월해진다. 전문적인 자료가 근거로 제시되는 읽기 상황에서는 댓글만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이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해당 주제와 관련된 보다 전문적인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해당 주제에 대한 신문 기사나 전문 잡지의 기사들을 검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더 전문적인 자료로는 논문이나 보고서와 같은 학술 자료도 있다. 전문적인 연구자가 아닌 경우 이러한 자료를 구입하려면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수의 학술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다양한 목소리의 경청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참여를 비판적 읽기의 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정보성이 부족한 사안에 대해 다른 사람이 쓴 댓글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뚜렷한 의견을 가진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또 다른 독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읽기 방식은 독자들 간에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양질의 텍스트가 소통되는 데

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한 예로 주민재(2019)의 연구에서는 블로그의 고정 독자, 즉 특정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독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고정 독자의 읽기 행위는 블로그 운영자로 하여금 다양한 관점을 가진 독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근거들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텍스트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전략은 자신의 읽기 행위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전략이다. 주지하다시피 읽기는 저자와 독자가 텍스트를 매개로 수행하는 소통의 과정이다. 이 세 축, 즉 저자, 텍스트, 독자 중에서 비판적 읽기와 관련하여 그동안 초점이 되었던 것은 텍스트, 그리고 그 텍스트의 이면에 숨겨진 저자의 의도였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읽기를 논할 때는 이 두 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외에 독자 자신에 대한 비판적 점검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비판적 점검도 크게 세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자신의 균형 감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독자가 필터 버블 속에 갇히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독자 스스로 그 거품 속에 안주하려는 경향, 이른바 확증 편향 또는 믿음 보전 편향이 발생하기도 한다. 확증 편향이란 사고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 또는 선호하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찾으면서 대안적이거나 모순적인 증거를 무시하는 심리적 경향을 말한다. 이예경(2012)는 이러한 심리적 경향의 원인이 “진실이기를 바라는 것은 더 쉽게 믿는 반면 거짓이기를 바라는 것은 잘 믿으려 하지 않는 인간 본연의 습성”, “자신의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에 자신을 더 노출시키려는 성향”, 긍정 편향 즉 “부정적 정보보다 긍정적 정보를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성향, “논리적인 사고보다 미래의 보상에 대해 기대하고 오류를 피하는 방향으로 사고하는 성향”(6쪽) 등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증 편향에 대한 의식적인 자각과 더불어 자신의 믿음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그 타당성

을 판단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비판적 점검의 또 다른 측면은 스스로 어떠한 목적에서 읽기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혜정(2010)의 연구에서는 현대인들의 읽기 행위가 주체적인 의미 구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보다는 유행에 휩쓸린 하나의 소비 행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음을 경고하고 있다.

자기 정체성은 상징이나 이미지를 통해 연출되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어떤 책을 읽는가 또는 어떤 책을 사는가 하는 것은 이미 책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대중 독자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해 주면서도 동시에 동일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해 주는 기호이자 상징으로 작용한다. 현대 사회는 이런 이미지나 상징의 소비가 일반화되는 추세에 있다. (중략) 독서의 대상물은 반드시 아날로그식 '책'일 필요가 없다. (중략) 뮤지컬, 영화, 광고, 드라마가 모두 독서물로서 소비 대상으로서 책과 동일시된다. 그래서 대중 매체와 엄청난 양으로 소통하지만 진정한 선택은 아니며, 주체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략) 그 자체를 소비하고 때로는 향유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호로서의 작용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 김혜정(2010), 71~72쪽.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자신이 마주하는 텍스트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점검하는 것이다. 앞서 서론에서 소개한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3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의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10시간 47분 정도라고 한다.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수행한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3~69세 국민 중에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은 19.1%이며, 연령대 별로 보면 청소년의 29.3%, 성인의 18.1%가 과의존위험군에 속한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대한 과의존 현상은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콘텐츠의 유형은 메신저였다. 꼭 필요

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읽기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비판적 읽기의 한 부분이며, 미디어가 발달하면 할수록 이 요인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 맷음말

이른바 탈진실의 시대이다. 어느 시대나 비판적 읽기가 중요한 능력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의 비판적 읽기는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 역량일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안녕과 화합을 유지하는 토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각자가 서로 다른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논쟁하는 이 시대에 과연 개인 차원의 비판적 읽기 능력만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 역시 예전에 『새국어생활』의 한 지면을 통해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소개한 적도 있다. 매킨타이어[McIntyre (2018)]는 이러한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시민 사회의 연대와 공동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탈진실의 정신 상태를 제어하고 그 방향성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진실에 좀 더 가까이 있거나 진실에 체계적으로 의존하는 부문, 즉 과학(혹은 학문), 교육, 언론, 정치, 경제 등과 같은 사회 제도의 주체들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더 굳건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략) 탈진실 시대로부터 이득을 편취하려는 엘리트 집단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중략) 소비자이자, 시민이자, 수용자이자, 공중으로서의 우리는, 대개의 경우 ‘진실성’ 자체를 스스로 판별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들이 스스로 정한 윤리를 위배하고 탈진실의 촉진자로서 행동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에 대해 엄정한 도덕적 비난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매킨타이어(2018), 262~263쪽.

요컨대 각자가 스스로의 비판적 읽기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연대를 통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집단적 읽기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대처를 읽기 활동의 일부로 인식하고 직간접적인 참여를 통해 건강하지 못한 텍스트들이 발붙일 자리를 제거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새로운 소통 환경에 맞게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읽기 교육에 앞서 텍스트 생산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짚어 두고자 한다. 그동안 학교에서의 쓰기 교육이 지나치게 기능과 전략을 강조하고 설득적 쓰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쓰기에 대한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9), “2018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요약 보고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 김선호·김위근·박아란·양정애(2018),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8 한국”,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혜정(2010), “대중독자의 독서 양상과 비판적 읽기 필요성”, 『독서연구』 24, 51~86쪽.
-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2017), “신유형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 실태 조사: 인터넷 개인 방송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 이예경(2012), “학종 편향 극복을 위한 비판적 사고 중심 교육의 원리 탐구”, 『교육과학연구』 43(4), 1~31쪽.
- 정은진·정윤경·김나라·류지영·김재희·장현진(2018),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주민재(2019), “인터넷 쓰기 과정에서 작용하는 실제 독자의 활동과 심리 분석”, 『리터러시연구』 10(2), 227~263쪽.
- Levitin, D. J.(2016), 『Weaponized lies』. 박유진 역(2017), 『무기화된 거짓말』, 레디셋고.
- McIntyre, L. C.(2018), 『Post-truth』. 김재경 역(2019), 『포스트 트루 스』, 두리반.
- Pariser, E.(2011), 『The filter bubble: How the new personalized web is changing what we read and how we think』. 이현숙·이정태 역(2011), 『생각 조종자들: 당신의 의사결정을 설계하는 위험한 집단』, 알키.